휴비스, 중국 PET 15만톤 8월 가동

7월말 시험가동 끝내고 15만톤 양산체제 … 공장입지 우려 없어

휴비스(대표 조민호)가 2001년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중국 현지의 사천성 자공시에 건설한 단섬유공장이 7월말로 시험가동을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돌입한다.

중국 사천공장은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LMF(Low Melting Fiber)를 비롯해 15만톤의 Polyester 단섬유를 생산할 예정이며 전량 중국 자체 수요로 충당할 계획이다.

당초 건설부지에 대해 중국의 Polyester 단섬유 시장의 핵심인 동부해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고 물류기반 시설이 미비한 중국 내륙은 위험요소가 다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도 했다.

그러나 휴비스는 동부지역에 비해 낙후된 중국 서부지역에는 범용사의 생산 및 판매에 집중하는 반면 상하이 등 동부지역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할 전략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물류시스템이나 창고관리를 비롯한 전체적인 물류·유통 시스템 체계를 국내와 중국현지의 Logistic 전문기업과 연계해 구축해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휴비스는 침체된 내수 섬유시장을 벗어나 중국을 비롯한 해외진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데 Sichuan Polyester와 합작하는 Polyester 22만톤 프로젝트도 2004년 1월6일 Zigong 지역에서 착공돼 2005년 1/4분기에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2002년 Polyester 칩 및 섬유제품에 대한 수입쿼터 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자동수입 등록제도로 변경해 국내 섬유기업들의 중국수출이 한결 수월해 졌다.

수입관세도 2002년 초부터 인하돼 Polyester 칩은 12.8%, Polyester Filament 섬유는 11.4%, Staple 섬유는 10.6%로 인하됐고, 2003년 1월1일 또 한차례 낮춰져 각각 11.8%, 8.2%, 7.8%를 적용받고 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8/04>

Copyright ⓒ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